고대 후기의 고전 • 삽화판

성 마르티노의 생애

De vita beati Martini

술피키우스 세베루스



해설자의 역사적 배경 설명과 삽화 14점을 실은 현대 한국어 완역판

차례

들어가는 말 해설자의 첫머리 글: 전설 뒤에 있는 사람 4

헌정 편지 성 마르티노의 생애에 관하여 저자가 벗 데시데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6

제I장 거룩한 삶이 헥토르나 소크라테스의 명성보다 값진 이유 8

제II장 판노니아에서 이탈리아로: 성당으로 달아났다가 사슬에 묶여 군대로 끌려간 소년 10

제III장 아미앵 성문에서 둘로 자른 망토와 그리스도의 환시 12

제IV장 보름스에서 율리아누스와 마주 서다: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15

제V장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 구마자의 직무, 그리고 알프스에서 만난 강도들의 매복 17

제VI장 길에서 만난 악마, 공개 매질, 그리고 갈리나라섬의 독초 20

제VII장 Ligugé 수도원과 첫 기적: 되살아난 예비 신자 22

제VIII장 죽음에서 구해 낸 루피키누스의 젊은 노예 24

제IX장 투르의 주교로 세우려는 ‘납치’와 데펜소르 주교의 망신 25

제X장 나무 오두막에 산 주교: Marmoutier의 설립 27

제XI장 정체가 드러난 가짜 순교자: 제대 곁에 나타난 범죄자의 영 29

제XII장 들판 한가운데에서 얼어붙은 이교도의 장례 행렬 31

제XIII장 신성한 소나무의 도전: 쓰러지는 나무 아래 묶이다 32

제XIV장 바람을 거슬러 물러난 불길과 Levroux의 무장한 두 천사 35

제XV장 아이두이족의 땅에서 칼 앞에 드러낸 목 37

제XVI장 트리어에서 축복한 기름으로 고친 마비된 소녀 38

제XVII장 전직 총독 테트라디우스,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의 입에 넣은 마르티노의 손가락 39

제XVIII장 야만족 침입이라는 헛소문, 파리에서 나병 환자에게 한 입맞춤, 그리고 옷의 실오라기 41

제XIX장 아르보리우스의 딸을 고친 편지, 놀라의 파울리노의 눈,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일 43

제XX장 황제 마그누스 막시무스의 연회: 황제보다 먼저 사제에게 건넨 잔 44

제XXI장 천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피 묻은 쇠뿔을 든 악마 47

제XXII장 유피테르, 메르쿠리우스, 베누스의 변장 — 그리고 악마에게까지 한 용서의 약속 49

제XXIII장 클라루스 이야기, 거짓 예언자 아나톨리우스,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옷 50

제XXIV장 히스파니아의 가짜 그리스도들과 황제 차림을 한 악마: “십자가의 상처가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않겠다” 53

제XXV장 저자가 성 마르티노를 찾아가다: 자기 전기 작가의 발을 씻어 준 주교 55

제XXVI장 내면의 초상: 대장장이의 모루, 그리고 자기 사제들에 대한 인내 58

제XXVII장 맺음말: 빛나는 얼굴, 그리고 시기하는 주교들에게 주는 대답 59

해설자의 맺는 글 그 뒤의 이야기: 성 마르티노의 죽음과 11월 11일의 유래 61

이 판에 대하여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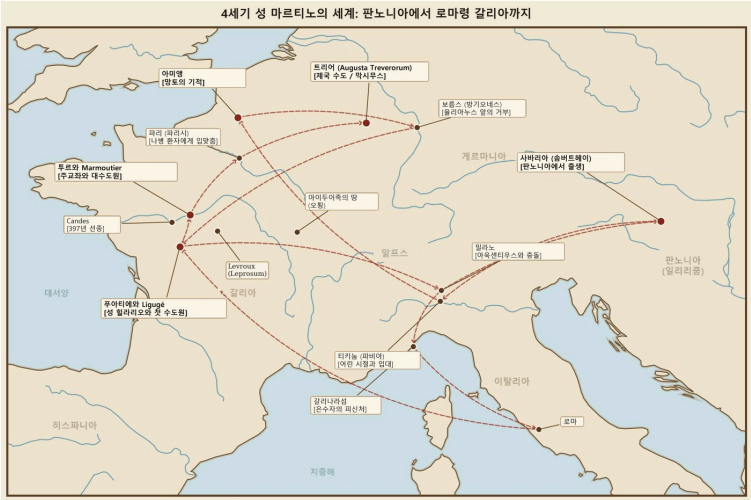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해설자의 첫머리 글: 전설 뒤에 있는 사람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11월 11일이 돌아오기만 하면 성 마르티노의 이름이 다시 일상의 대화에 오르내립니다. 군밤 냄새, 햇포도주, 등불 행렬,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성 마르티노의 여름"이라고 부르는, 철 지난 따스하고 화창한 날들도 함께 돌아옵니다. 얼어붙을 듯 추운 겨울날, 말을 탄 젊은 로마 병사가 추위에 떠는 거지를 감싸 주려고 칼로 자기 망토를 둘로 잘랐다는 그 모습은 거의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르의 성 마르티노(316/336년경~397년)가 중세 전설 속의 흐릿한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 제국 후기의 인물 가운데 기록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의 전기 『*성 마르티노의 생애*』(*De vita beati Martini*)는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쓰였고, 쓴 사람은 그를 직접 알고 그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오래 이야기를 나눈 인물, 바로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입니다.

술피키우스 세베루스(363년경~425년경)는 뛰어난 법률가이자 이름난 웅변가였고, 오늘날 프랑스 남서부에 해당하는 아퀴타니아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396년 무렵, 서로마 제국은 깊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황제들의 공식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비단옷을 입고 궁정에서 식사하는 데 익숙한 유력한 주교들이 늘어 갔고, 시골 마을(*pagi*)의 농촌 주민들은 여전히 신성한 나무와 옛 켈트·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역사 지도: 4세기 성 마르티노의 세계 — 그가 태어난 사바리아(판노니아)와 군인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티키눔, 아미앵, 보름스에서부터 Ligugé와 Marmoutier의 수도원, 그리고 투르 교구까지.

그렇게 변해 가던 세상 한가운데에서 마르티노는 상류층에게 그야말로 걸림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실 근위대 장교 출신이면서, 훗날 황제가 될 율리아누스와 얼굴을 맞대고 싸우기를 거부한 사람. 백성들의 꾀에 넘어가 끌려가다시피 투르의 주교가 되었지만 끝내 주교관에서 살기를 마다하고 나무 오두막과 낙타털로 짠 거친 옷을 택한 사람. 그는 파리의 성문에서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트리어에서 황제들에게 맞섰으며, 사기꾼들의 정체를 드러냈고, 심지어 악마조차 뉘우칠 수만 있다면 하느님께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여 가장 엄격한 신학자들까지 놀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판에서는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글 전체를 **쉽고 자연스러운 오늘날의 한국어**로 다시 썼으며, 라틴어 원문의 모든 일화와 세부를 충실히 살렸습니다. 각 장 끝에서는 제가 해설자로 여러분 곁에 서서 로마의 군대 관습, 당시의 지리, 정치적 배경, 4세기의 문화를 설명합니다. 술피키우스 시대의 독자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의 놀라운 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헌정 편지

성 마르티노의 생애에 관하여 저자가 벗 데시데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세베루스가 사랑하는 형제 데시데리우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의 형제이자 소중한 벗이여, 나는 성 마르티노의 생애에 관해 쓴 이 작은 책을 서랍 속에 넣어 두고 내 집 담장 안에만 가두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성이 소심한 터라 사람들의 비판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내 글이 독자들 마음에 들지 않을까, 전혀 다른 재능을 지닌 작가들이 다루어야 마땅한 주제에 감히 손을 댔다고 모두가 나를 나무라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어찌나 간곡히 조르던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평판이 위태로워진다 한들, 우리 우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겠다는 그대의 약속을 믿고 이 작은 책을 그대에게 넘깁니다. 그렇기는 해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책에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 줄 사람이 바로 그대일 것 같아서입니다. 한번 나가 버리면 다시 불러들일 길이 없지요.

만일 그런 일이 생겨 몇몇 사람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부디 문체보다는 사건 자체에 더 무게를 두어 달라고, 그리고 덜 우아한 문장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너그러이 참아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하느님 나라는 말솜씨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요. 또 세상의 구원을 알린 이들은 위대한 웅변가가 아니라 어부였다는 점도 기억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물론 하느님께서 그것이 쓸모 있다고 여기셨다면 웅변가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토록 비범한 사람의 덕행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느껴 이 일에 착수하기로 했을 때, 나는 문법상의 실수가 더러 끼어들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글

쓰기에 대단히 밝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고, 예전에 조금 배운 것마저 오랜 세월 쓰지 않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일이 변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정말 이 책을 펴내고 싶거든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첫 장에서 서명을 긁어내어 그 면이 침묵하게 하면 됩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책은 자기가 전하는 이야기만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해 주십시오.

해설자의 배경 설명: 위대한 법률가의 거짓 겸손과 '긁어낸' 책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문학적 겸손에 속지 맙시다! 그가 "다듬어지지 않은 글"과 있을지 모를 "문법상의 실수"(*soloecismi*)에 대해 사과할 때, 그는 로마 웅변술의 고전적 기법인 *captatio benevolentiae*, 곧 겸손한 척하여 독자의 호감을 얻는 기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술피키우스는 로마령 갈리아에서 가장 교양 있는 법률가이자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그의 라틴어가 워낙 훌륭해서 그를 "그리스도교의 살루스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4세기 말, 고전 학교에서 교육받은 로마의 상류층은 성경 본문을 얕보았습니다. 키케로의 세련된 산문과는 거리가 먼, 꾸밈없고 직설적인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피키우스는 복음을 알린 이들이 "위대한 웅변가가 아니라 어부"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적·영적 진실이 문학적 화려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편지 끝에 나오는 실제적인 세부도 눈여겨보십시오. *"첫 장에서 서명을 긁어내면 됩니다"*(*titulum fronti erade*). 고대 후기에는 아직 인쇄기가 없었습니다. 책을 펴낸다는 것은 인맥이 넓은 벗에게 양피지 필사본을 보내어 그 집안의 필경사들이 새 사본을 만들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퀴타니아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 귀족 데시데리우스가 그 벗입니다. 양피지(가공한 동물 가죽)는 비싸고 아주 질겼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른 잉크를 칼날이나 속돌로 긁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데시데리우스는 이름을 조금도 긁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책을 널리 퍼뜨렸고, 이 작품은 서방 그리스도교 문학 최초의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1장

거룩한 삶이 헥토르나 소크라테스의 명성보다 값진 이유

세속의 학문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이 유명한 인물의 전기를 쓰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노력이 그들에게 영원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바라던 것을 조금은 가져다주었다. 한편으로는 별 가치는 없을지언정 세상에 이름을 남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 마음에 그 본보기를 따르고 싶다는 큰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참으로 복되고 영원한 삶을 얻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운명인 그들 책의 명성이 결국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또 후대 사람들은 헥토르의 전투나 소크라테스의 철학 토론을 읽고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을 본받으려는 것만 해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생각에 단호히 맞서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이 땅에서 하는 일로만 헤아렸기에, 희망을 전설에 걸고 영혼을 무덤에 넘겨주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목표는 영원한 명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글을 쓰거나 전쟁을 하거나 철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선하게, 하느님께 충실하게 살아서 얻는 것이다.

책을 통해 대대로 전해진 이 잘못은 너무나 강력해서, 수많은 사람이 때로는 그 공허한 철학을, 때로는 그 그릇된 무용(武勇)의 이상을 본받게 만들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나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 앞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될 만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이가 참된 지혜와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올바른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느끼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의 유익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하느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바란다. 나 자신은 본보기가 될 만큼 살지 못했을지라도, 참으로 본받을 만한 분을 알리기 위해 내 힘이 닿는 일은 적어도 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성 마르티노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겠다. 그가 주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교구를 맡은 뒤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 주려 한다. 물론 그가 한 일을 모두 알아내지는 못했다. 그 혼자만 목격한 일들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다. 마르티노는 결코 칭찬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모든 선행을 숨기고 싶어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 귀에 들어온 것들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을 뺐다. 가장 두드러진 순간들을 고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사례로 독자를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독자들에게 다만 여기 적힌 것을 믿어 주기를, 그리고 내가 먼저 아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해 주기를 청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웠다면 나는 거짓을 말하느니 차라리 침묵했을 것이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헥토르, 소크라테스, 그리고 새로운 영웅상의 발명

이 첫 장에서 술피키우스 세베루스는 로마 제국의 교양 있는 독자층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4세기 로마의 학교에서 모든 교육은 두 개의 큰 기준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헥토르**(『*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아의 영웅)로 대표되는 호메로스의 전사 서사시이고,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 전통이었습니다.

술피키우스는 이들을 마르티노와 맞세움으로써 작은 문화 혁명을 일으킵니다. 전쟁 영웅과 고대 철학자 대신 새로운 인간상, 곧 *coelestis militia*("하늘의 군 복무")에 입대하는 신앙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장 끝에 나오는 다짐도 눈여겨보십시오. 법정에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익숙한 전직 법률가답게, 술피키우스는 믿을 만한 목격자에게서 수집했거나 마르티노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만 실었다고 보증합니다.

제11장

판노니아에서 이탈리아로: 성당으로 달아났다가 사슬에 묶여 군대로 끌려간 소년

마르티노는 판노니아 속주의 도시 사바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의 티키눔에서 자랐다. 그의 집안은 당시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가 괜찮았으나 부모는 이교도였다. 아버지는 평범한 병사로 군 생활을 시작하여 나중에 천인대장의 지위까지 올랐다.

마르티노 자신도 젊은 시절 군인의 길을 걸어, 콘스탄티우스 황제 치세에, 그다음에는 부황제 율리아누스 휘하에서 황실 근위 기병대에 복무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었다. 이 비범한 소년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섬기는 일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겨우 열 살 때 그는 부모의 뜻을 거슬러 성당으로 달아나 예비 신자로 받아 달라고 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이로서는 놀랄 만큼 온전히 하느님의 일에 마음을 쏟게 된 그는 열두 살에 광야로 가서 은수자로 살기를 꿈꾸었다. 아직 너무 어리고 약하지만 않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의 마음은 늘 수도원이나 성당에 가 있었고, 훗날 그토록 헌신적으로 이루게 될 일을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황제들은 퇴역 군인의 아들들에게 입대를 의무화하는 칙령을 내렸다. 아들의 종교적 성향을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마르티노의 아버지가 직접 그를 고발하여 당국에 넘겼다. 그리하여 마르티노는 겨우 열다섯 살에 붙잡혀 사슬에 묶인 채 억지로 군인 선서를 하게 되었다. 그는 시중들 노예를 한 명만 데려갔는데, 통상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주인이 종을 섬긴 것이다. 그 사람의 군화를 벗겨 닦아 주는 쪽은 대개 마르티노 자신이었고,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함께 앉아 먹었으며, 음식 시중도 거의 언제나 마르티노가 들었다.



티키눔(파비아)에서, 겨우 열다섯 살인 젊은 병사 마르티노가 로마의 위계를 뒤집고 천막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자기 종의 군화를 벗겨 닦아 준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 거의 3년을 군대에서 보냈지만, 병사들이 흔히 빠지는 악습은 언제나 멀리했다. 전우들을 한없이 친절하게, 보기 드물게 너그럽게 대했고, 인간의 힘을 넘어선 듯한 인내와 겸손을 지녔다. 그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는 굳이 칭찬할 필요도 없다. 워낙 절제된 삶을 살았기에 그때 이미 군인이라기보다 수도승처럼 보였다. 이런 됨됨이로 동료 병사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아, 모두가 그를 크게 존경하고 아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기가 하는 일들로 이미 사실상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다.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돕고, 가장 비참한 이들을 구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옷을 주었다. 군대 봉급에서는 날마다 먹는 데 필요한 것 말고는 자기 몫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 이미 그는 복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정예 부대, 강제 징집, 그리고 노예의 군화를 닦은 장교**
>
> 여기에는 4세기에 관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여럿 담겨 있습니다.

1. **지리:** 마르티노가 태어난(전통적인 연대로는 316년, 최근 연구에 따르면 336년경) **사바리아**는 오늘날 헝가리의 도시 솜버트헤이로, 당시에는 로마의 판노니아 속주에 속했습니다. 그가 자란 **티키눔**은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의 **파비아**로, 당시에는 중요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2. **천인대장 아버지와 집안에서의 고발:** 마르티노의 아버지는 로마 군대에서 밑바닥부터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병사(*miles*)로 시작하여 **천인대장**(*tribunus militum*), 곧 기사 신분과 넉넉한 수입을 누리는 고위 장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제국 후기에는 국경을 지킬 병력이 늘 모자랐기 때문에, 국가는 퇴역 군인의 아들들이 군인의 길을 잇도록 의무화하는 세습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신들을 섬기던 늙은 이교도 장교에게 열다섯 살 아들이 그리스도교 수도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징집관들에게 넘겨 족쇄를 채워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3. **궁정 근위대(*scholares alae*):** 마르티노는 일반 보병 부대가 아니라 *Scholae Palatinae*에 들어갔습니다. 황제(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와 부황제(**율리아누스**)를 직접 호위하는 정예 기병대였습니다. 명예로운 부대였고 봉급도 좋았으며, 개인 시종을 둘 권리도 있었습니다.

4. **'예비 신자'란 무엇이었을까요?** 4세기에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예비 신자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는 여러 해에 걸쳐 영적으로 준비하고 도덕적으로 시험받는 단계였습니다.

5. **노예와의 역할 뒤바꾸기:** 로마 사회에서 무거운 군화(*caligae* 또는 *calciamenta*)를 벗기고 진흙을 긁어내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황실 근위대의 젊은 장교가 자기 종의 군화를 닦아 주고 식탁에서 시중까지 든다는 것은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III장

아미앵 성문에서 둘로 자른 망토와 그리스도의 환시

어느 때인가, 그에게 무기와 소박한 군용 망토 한 벌밖에 남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다. 여느 해보다 훨씬 혹독한 겨울이어서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얼어 죽을 만큼 추위가 매서웠는데, 마르티노는 아미앵 성문에서 옷을 하나

도 걸치지 못한 가난한 사람과 마주쳤다. 그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원했지만, 모두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쳐 갔다. 믿음으로 가득 찬 이 젊은이는 아무도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러 나서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를 자기에게 맡기신 것임을 곧바로 깨달았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에게는 걸치고 있던 군용 망토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른 것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망토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 한쪽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은 조각은 다시 자기 어깨에 걸쳤다. 주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망토가 반이나 잘려 나간 병사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더 양심 있는 많은 사람은 자기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도 그 사람을 입힐 여유가 넘치도록 있었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부끄러워했다.



얼어붙을 듯한 겨울, 아미앵 성문에서 마르티노가 눈 속의 헐벗은 가난한 사람을 감싸 주려고 흰색과 진홍색의 궁정 근위대 망토를 칼로 둘로 자른다.

그날 밤 잠이 든 마르티노는 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분은 그가 거지에게 준 바로 그 망토 반쪽을 입고 계셨다. 그는 주님을 자세히 보고 자기가 내준 옷을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는 듯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둘러

선 수많은 천사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직 예비 신자일 뿐인 마르티노가 이 망토로 나를 입혀 주었다!”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 그대로, 그 가난한 사람 안에서 옷을 입은 이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이렇게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 행동의 가치를 확인해 주시려고 거지가 받은 바로 그 천 조각을 입고 나타나기로 하셨다. 이런 환시를 보고도 마르티노는 우쭐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아보고, 열여덟 살이 되자마자 서둘러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는 해도 곧바로 군대를 떠나지는 않았다. 가까운 벗이자 같은 천막을 쓰던 자기 천인대장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겼기 때문이다. 이 지휘관은 자신의 복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기도 세속의 삶을 떠나겠다고 그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믿고 마르티노는 세례 후에도 거의 2년을 더 군대에 머물렀지만, 그때는 이미 이름만 군인이었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군용 망토, ‘채플’이라는 말의 기원, 그리고 성 마르티노의 여름

우리는 방금 성 마르티노의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를 읽었습니다. 이 일은 330년대 또는 350년대의 어느 얼어붙을 듯한 겨울, *Samarobriva Ambianorum*, 곧 오늘날 프랑스 북부의 도시 **아미앵**의 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세 가지가 이 장면을 한층 생생하게 해 줍니다.

1. **마르티노는 왜 망토를 통째로 주지 않고 반으로 잘랐을까요?** 로마 황실 근위대에서 흰색이나 진홍색의 군용 망토(*chlamys*, 겨울에는 흔히 양가죽을 덧댐)는 규정 군복의 일부였습니다. 절반은 로마 국가의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병사가 값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병사가 망토 없이 사열에 나타나면 장비를 잃어버린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마르티노는 칼로 망토를 반으로 잘라 자기 몫은 전부 내주고 의무적으로 지녀야 하는 몫만 남겼습니다. 그 바람에 행인들이 웃을 만큼 우스꽝스러운 꼴(*truncatus habitu*)이 되었습니다.

2. **마르티노의 반쪽 망토에서 영어 ‘chapel’과 ‘chaplain’이라는 말이 나온 사연:** 여러 세기 뒤, 성 마르티노의 이 반쪽 망토(후기 라틴어로 *cappa*, ‘작은 망토’라고 불림)는 프랑크 왕들의 가장 귀한 유물이 되었고, 왕들은 전쟁터에까지 이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 마르티노의 *cappa*를 보관하던 작은 성소는

capella('작은 망토가 있는 곳')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것을 돌보는 임무를 맡은 사제들은 *capellani*였습니다. 영어의 **chapel**(경당, 우리말에 들어온 '채플')과 **chaplain**(전담 사제, 군종 사제)을 비롯해 유럽 여러 언어의 같은 계통 낱말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3. **그러면 "성 마르티노의 여름"은요?**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원문에서 볼 수 있듯이, 4세기에는 그 순간 해가 구름을 뚫고 나왔다는 전설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 민간 전승은 여러 세기 뒤에 생겨났습니다. 성 마르티노의 장례 축일(**11월 11일**)이 11월 중순의 흔한 날씨, 곧 겨울이 오기 전 따뜻한 햇살과 맑은 하늘이 며칠씩 이어지는 때와 겹치게 되면서, 망토를 나눈 행동의 인간적 온기와 가을 햇살이 영원히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IV장

보름스에서 율리아누스와 마주 서다: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야만족들이 갈리아를 침략했다. 그러자 부황제 율리아누스는 방기오네스족의 도시 근처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병사들에게 특별 하사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관례대로 병사들이 한 사람씩 이름이 불려 나갔고, 마침내 마르티노의 차례가 되었다.

마르티노는 지금이 군대에서 제대를 청할 알맞은 때임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전투에 나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 돈을 받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율리아누스에게 직접 말했다. "오늘까지 저는 당신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사금은 전투에 나갈 사람이 받게 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보름스(서기 356년)에서, 군사 재판석과 부황제 율리아누스의 금궤 앞에서 마르티노가 출정 하사금을 거절한다. "오늘까지 저는 당신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폭군은 격분하여, 그가 군대를 떠나려는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다음 날로 잡힌 전투가 두려워서라고 몰아세웠다. 마르티노는 겁먹기는커녕 그 위협 앞에서 오히려 더 굳건해져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내일 무기 없이 우리 군대 맨 앞줄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패도 투구도 없이 오직 십자 표시의 보호만 받으며 두려움 없이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그가 다음 날 무기 없이 야만족 앞에 서서 자기 말을 지키도록 만들려고 즉시 그를 가두게 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적이 사절을 보내 화평을 청하면서, 조건 없이 항복하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았다.

이를 보고서, 이 승리가 마르티노 덕분이었음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를 무기 없이 최전선에 내던져지는 일에서 건져 주셨음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선하신 주님께서는 적의 칼과 창 한가운데에서도 당신의 군사를 얼마든지 무사히 지켜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티노의 눈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조차 없도록 전투 자체를 막기

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군사에게 주실 승리가 이것 말고 달리 무엇이겠는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 말이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금화 하사금, 배교자 율리아누스, 그리고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한 사람**
>
> 때는 **서기 356년**, 장소는 방기오네스족의 도시 *Borbetomagus*, 곧 오늘날 독일 라인강 변의 **보름스**입니다. 게르만 부족들(알라만니족과 프랑크족)이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의 여러 도시를 약탈한 뒤였습니다.
>
> 로마군을 이끄는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의 조카 **부황제 율리아누스**입니다. 그는 몇 해 뒤 황제가 되어 로마 제국에 이교를 되살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역사에 **배교자 율리아누스**(361~363)로 남게 됩니다. 술피키우스가 그를 매몰차게 '폭군'(*tyrannus*)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
> 마르티노의 용기를 가늠하려면 이 군사 하사금(*donativum*)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통상 봉급(*stipendium*)과는 별도로, 중요한 원정을 앞두고 지휘관이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넉넉한 액수의 금화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donativum*을 받는다는 것은 다가오는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명예의 서약을 새로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르티노가 금화를 받고 나서 칼을 들기를 거부했다면 탈영과 절도죄로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군이 도열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돈을 거절함으로써 율리아누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이것은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V장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 구마자의 직무, 그리고 알프스에서 만난 강도들의 매복

군 생활을 그만두자마자 마르티노는 푸아티에의 주교 성 힐라리오를 찾아갔다. 당시 그의 신앙과 종교적 지혜는 모든 이의 찬탄을 받고 있었다. 마르티노는 한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다. 힐라리오는 그를 가까이 두고 부제로 서품하여 교구 성직자단에 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르티노는 자기

는 그토록 큰 직무에 합당하지 않다고 고집하며 번번이 거절했다. 통찰력이 대단했던 힐라리오는 그를 설득할 길이 하나뿐임을 알아차렸다. 거의 강등처럼 보일 만큼 보잘것없는 역할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구마자가 되라고 제안했고, 이번에는 마르티노도 받아들였다. 너무 낮은 자리라고 업신여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꿈에서, 고향과 아직 이교에 매여 있는 부모를 찾아가 그들이 신앙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는 일깨움을 받았다. 그는 성 힐라리오의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 힐라리오는 간청과 눈물로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뒤에야 그를 보내 주었다. 마르티노는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면서 동행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고 한다. 여정은 곧 그 말이 옳았음을 보여 주었다.

먼저, 알프스를 넘으며 인적 드문 지름길로 들어섰다가 산적들의 매복에 걸려들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실제로 그의 머리를 쪼개려고 도끼를 치켜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른 강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래도 그들은 마르티노의 손을 등 뒤로 묶고 가진 것을 빼앗은 다음, 패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를 맡겼다. 이 사람은 그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누구냐고 묻기 시작했다. 마르티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 강도는 두렵지 않으냐고 물었다. 마르티노는 더없이 침착하게, 살면서 이토록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느님의 보호는 결코 어긋나는 법이 없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오히려 범죄의 삶에 얽혀 그리스도의 자비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그가 더 불쌍하다고 덧붙였다.



알프스의 협곡에서,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마르티노가 도끼를 들고 자기를 지키는 강도에게 차분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그를 회심시킨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길게 늘일 필요는 없다. 도둑은 들은 것을 믿었고, 마르티노를 큰길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뒤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며 작별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수도 생활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은 이 일화 전체가 바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성 힐라리오의 기지, 그리고 '구마자'가 보잘것없는 자리였던 이유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315년경~367년)는 갈리아 교회의 위대한 지적 권위자였습니다. 뛰어난 신학자였고, 마르티노의 참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이 장에는 요즘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르티노는 왜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며 **부제**가 되기를 거절하고서, 낮은 역할이라는 이유로 **구마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였을까요? 4세기 교회에서 **부제**는 주교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교구의 회계를 관리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직했으며, 사회적 비중도 대단했습니다. 반면 **구마자**는 이른바 '소품(小品)'에 속했습니다. 예비 신자들과 함께하고, 성당을 돌보고, 공동체 변

> 두리에서 살아가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나 마귀 들렸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을 보살피는, 눈에 띄지 않는 보조 직무였습니다. 힐라리오는 탁월한 심리전을 편 것입니다. 명예로운 직무를 주면 마르티노가 달아나겠지만, 교회의 가장 낮은 단계는 교만해 보일까 두려워 결코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VI장

길에서 만난 악마, 공개 매질, 그리고 갈리나라섬의 독초

길을 계속 가던 그가 밀라노를 지났을 때, 악마가 사람의 모습으로 길에 나타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마르티노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고 대답하자 악마는 이렇게 경고했다.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려 하든, 악마가 언제나 네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마르티노는 곧바로 시편 구절로 응수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바로 그 순간 원수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마침내 고향에 이른 그는 그토록 바라던 일의 일부를 이루었다. 어머니를 이교에서 떠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끈 것이다. 다만 아버지는 삶을 바꾸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마르티노의 모범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

그 무렵 아리우스 이단이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특히 일리리쿰 지방에서 기세를 떨쳤다. 마르티노는 거의 혼자서, 그 교리를 옹호하던 그 지방 주교들에게 대단한 용기로 맞섰다. 그는 그 거침없는 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심한 박해를 받았고, 광장에서 매로 맞았으며, 끝내 도시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돌아갔는데, 갈리아에서도 이단자들이 성 힐라리오를 유배 보내는 데 성공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밀라노에 작은 수도원을 세우기로 했다. 그곳에서도 평화는 없었다. 그 도시 아리우스파의 우두머리 아욱센티우스가 그에게 사나운 박해를 퍼부었고, 온갖 모욕과 학대를 가한 끝에 그를 밀라노에서 내쫓았다.

마르티노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덕망 높은 사제 한 사람과 함께 갈리나라라는 작은 섬으로 물러갔다. 그곳에서 한동안 풀뿌리와 들풀만 먹고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독성이 아주 강한 식물인 헬레보루스를 먹고 말았다.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깨닫자, 그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위험은 지나갔고 고통도 말끔히 사라졌다. 얼마 뒤 그는 황제가 앞선 결정을 뉘우치고 성 힐라리오에게 유배에서 돌아와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르티노는 귀향길에 오른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곧장 로마로 떠났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아리우스 위기와 마르티노의 무인도

마르티노가 왜 **광장에서 매질**을 당하고(그곳은 발칸 지역, 곧 판노니아와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일부를 아우르던 *Illyricum* 속주였습니다) **밀라노**에서 쫓겨났는지 이해하려면, 4세기 최대의 종교 논쟁인 **아리우스주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등한 영원한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째가는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니케아 공의회(325년)가 이 주장을 단죄했는데도,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파 주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니케아에 충실한 주교들을 유배 보내고(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도 356년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제국의 수도 밀라노 같은 중요한 주교좌를 **아욱센티우스** 같은 아리우스파 주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리우스파가 장악한 도시들에 발붙일 곳이 없어진 마르티노는 **갈리나라섬**(*Isola Gallinara*)으로 피신했습니다. 리구리아 해안 앞바다(이탈리아 북부 알벵가 근처)에 있는 작은 바위섬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야생 뿌리를 먹으며 은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초 **헬레보루스**를 다른 뿌리로 잘못 알고 먹고 만 것입니다.

제VII장

Ligugé 수도원과 첫 기적: 되살아난 예비 신자

마르티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힐라리오는 이미 그곳을 지나간 뒤였으므로, 마르티노는 그의 뒤를 따라 푸아티에까지 갔다. 힐라리오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고, 얼마 뒤 마르티노는 도시 외곽에 작은 수도원을 세웠다. 오래지 않아 젊은 예비 신자 한 사람이 그토록 존경받는 스승의 지도 아래 사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그에게 합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젊은이는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마르티노는 길을 떠나야 할 일이 있어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젊은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병이 너무 갑작스러워 세례받을 겨를조차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시신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수도승들이 눈물을 흘리며 둘러서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르티노가 비통하게 울면서 달려 들어왔다.

깊은 내적 영감에 이끌려, 그는 시신이 놓인 작은 독방에서 모두 나가 달라고 한 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이 끊어진 형제 위에 몸을 뻗어 엎드렸다. 그렇게 한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느님의 권능이 일하고 계심을 영혼 깊은 곳에서 느꼈다. 그러자 몸을 조금 일으켜 젊은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기 기도와 주님 자비의 열매를 굳게 믿으며 기다렸다.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온몸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떨리며 다시 빛을 향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깊이 감격한 마르티노는 큰 소리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고, 기쁨의 외침이 독방을 가득 채웠다. 이 소리를 듣고 문밖에서 기다리던 수도승들이 곧장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죽은 채로 두고 나온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말을 잃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Ligugé 수도원에서, 마르티노가 두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젊은 예비 신자가 눈을 뜨고 되살아나 수도승들을 놀라게 한다.

되살아난 젊은이는 곧바로 세례를 받았고 그 뒤로도 여러 해를 더 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마르티노의 기적을 증언하는 첫 번째 산증인이 되었다. 그는 몸을 떠난 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최고 심판관 앞으로 끌려갔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무리 속 어두운 곳으로 보낸다는 엄한 선고를 막 들은 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천사가 심판관에게, 이 사람이 바로 마르티노가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젊은이라고 알렸다. 심판관의 명에 따라 그 천사들이 그를 다시 데려와 마르티노에게 넘겨주고 생명을 되돌려 주었다. 그날부터 마르티노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졌다. 이미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던 그는 이제 기적의 권능으로도 찬탄을 받고 사도들에게까지 견주어지게 되었다.

> 🎙️ **해설자의 배경 설명: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과 4세기의 임사 체험 이야기**
>
> 마르티노가 **361년** 무렵 푸아티에 근처에 만든 작은 공동체가 바로 **Ligugé**입니다. 역사가들은 이곳을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으로 여기는데, 성 베네딕토보다 한 세기 반도 더 앞서 세워졌습니다!

이 일화에서 흥미로운 점 두 가지를 눈여겨보십시오.

1. **옛 예언자들의 몸짓:** 마르티노가 방문을 닫고 죽은 젊은이 위에 엎드릴 때,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 엘리야(1열왕 17,21)와 엘리사(2열왕 4,34)의 몸짓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젊은이는 왜 자기가 '어두운 곳'(*obscuris locis*)으로 보내질 뻔했다고 말할까요? 4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전 예비 신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빛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는 오늘날 우리가 임사 체험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대한, 서양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VIII장

죽음에서 구해 낸 루피키누스의 젊은 노예

얼마 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력 인사 루피키누스의 영지를 지나던 마르티노는 멀리서 많은 사람이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걱정이 된 그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영지의 젊은 노예 하나가 방금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르티노는 시신을 뉘어 놓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모두 나가 달라고 한 뒤, 젊은이 위에 몸을 뻗어 엎드리고 한동안 기도했다. 잠시 후 젊은이의 뺨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미 흐려졌던 눈이 생기를 되찾아 마르티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젊은이는 천천히 애써 몸을 일으키며 마르티노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섰고, 그 모든 사람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와 손을 잡고 제 발로 걸어 입구 안뜰까지 나왔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로마 대농장의 가장 약한 이들을 향한 연민

루피키누스는 로마인들이 *vir honoratus*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로원 귀족 계급의 대지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노예가 일하는 거대한 농장(*villa*)의 주인이었습니다(이 노예들을 로마식 의미에서 *familia*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장이 그토록 뭉클한 것은 가련한 노예(*servulus*)의 자살을 대하는 마르티노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세기 동안 교회법은 자살을 매우 엄하게 단죄하게 되고 그리스도교식 장례마저 금하기에 이르지만, 마르티노는 훈계 한마디 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삶을 끝낸 젊은이에게 손대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시신 위에서 기도하고, 주인과 집안의 모든 종이 보는 앞에서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안뜰로 데리고 나옵니다.

제IX장

투르의 주교로 세우려는 '납치'와 데펜소르 주교의 망신

그 무렵 투르 교회의 백성들이 마르티노를 주교로 모시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그를 수도원에서 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루리키우스라는 투르 주민이 꾀를 냈다. 아내가 죽어 간다고 꾸며 대고는 마르티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어찌나 애원했던지, 결국 그가 따라나서게 만든 것이다. 길목에는 미리 짜고 기다리던 시민들이 여러 무리로 늘어서 있다가 길에서 그를 에워싸고 거의 호송하다시피 투르로 데려갔다.

투르에는 새 주교를 뽑는 투표를 하려고 투르뿐 아니라 이웃 도시들에서도 모여든 엄청난 군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들 사이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원했고, 마르티노보다 주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런 사람을 수장으로 모시는 교구는 복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소수가 있었다. 서품식을 위해 그 도시에 불려온 주교들 가운데 몇몇도 거기에 끼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이 선택을 막으려 했다. 그들은 마르티노가 보잘것없는 인물일 뿐이고, 주교가 될 풍채가 아니며, 옷차림이 남루하고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다고 대놓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분별 있는 백성들은 그 고위 성직자들의 고집을 비웃었다. 그토록 훌륭한 사람을 깎아내리려던 그들의 말이 도리어 그를 칭송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백성의 뜻과 하느님의 계획에 떠밀려 그를 축성할 수밖에 없었다.

전하는 말로는, 그 자리에 있던 주교들 가운데 마르티노를 가장 거세게 반대한 사람의 이름이 하필이면 '옹호자'를 뜻하는 데펜소르였는데, 바로 그날 그는 모두가 예언적 표징으로 받아들인 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마침 그 예식에서 성경을 읽기로 되어 있던 독서자가 군중을 헤치고 들어오지 못해 밖에 갇혀 있었다. 제대에 있던 사제들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기다리는 동안,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시편집을 집어 들어 아무 데나 펼치고는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완전한 찬미를 이끌어 내셨으니, 당신의 적대자들에 맞서 원수와 옹호자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당 안에 울려 퍼지자마자 온 백성이 엄청난 함성을 터뜨렸고, 반대자들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채 부끄러움을 뒤집어썼다. 그 시편이 하느님의 뜻으로 나왔다는 것, 데펜소르 주교가 그 자리에서 자기 음모에 대한 단죄를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마르티노 안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굳건해졌고, 동시에 적대자의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성당에서 치른 백성의 선거, 상류 사회의 주교들, 그리고 '데펜소르'라는 말장난

날짜는 **371년 7월 4일**, 마르티노가 투르(*Caesarodunum Turonum*)의 주교로 축성된 날입니다. 이 일화는 4세기 교회의 아주 생생한 면모 세 가지를 완벽하게 그려 보입니다.

1. **주교는 어떻게 선출되었을까요:** 고대에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채 주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주교는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사제들, 이웃 교구의 주교들과 함께 공개 집회에서 직접 뽑았습니다(*ad suffragia ferenda*).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수도승이 그 직무를 받으려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때로 '우정 어린 납치'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루리키우스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2. **세련된 주교들과 덥수룩한 수도승의 충돌:** 다른 주교들은 왜 마르티노의 해진 옷과 길고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을까요? 4세기 후반에 로마 도시의 주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위신이 대단한 자리였고, 주로 전직 원로원 의원, 고위 관리, 대지주처럼 티 하나 없는 튜니카와 귀족의 예의범절에 익

숙한 사람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수염과 머리를 깎지 않은 가난한 은수자의 모습은 그 집단의 모든 예법에 어긋났습니다.

3. **시편 8,3의 폭발적인 우연:** 그 독서는 왜 장내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날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 구절이 *"원수와 보복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시려고"* 정도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마르티노 시대에 갈리아에서 쓰이던 옛 라틴어 번역본 *Vetus Latina*에서는 '보복하는 자' 자리에 쓰인 낱말이 글자 그대로 **defensorem**(*"ut destruas inimicum et defensorem"*)이었습니다! 마르티노를 반대하던 무리의 우두머리 이름이 **데펜소르**(Defensor)였으니, 누군가 아무 데나 펼쳐 *"원수와 데펜소르를 무너뜨리시려고"*라고 읽는 소리는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이름까지 짚어 직접 대답하신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X장

나무 오두막에 산 주교: Marmoutier의 설립

주교가 된 뒤 마르티노가 보여 준 영혼의 위대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는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마음은 똑같이 겸손했고 옷차림은 똑같이 가난했다. 타고난 권위와 품위가 넘치는 그는 주교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면서도 수도승의 소박하고 엄격한 삶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도시의 성당에 딸린 작은 방에서 살았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투르에서 3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수도원을 세우기로 했다. 그곳은 어찌나 고요하고 외진지 광야나 다름없어 보였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솟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루아르강이 부드럽게 굽이치며 작은 평지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아주 좁았다.



투르 외곽의 Marmoutier 수도원: 동굴을 파 놓은 석회암 벼랑과 루아르강의 굽이 사이에서, 가장 젊은 제자들이 필사본을 베껴 쓰는 일에 전념한다.

마르티노는 나무와 엮은 나뭇가지로 소박한 오두막을 손수 지었고, 몇몇 수도승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언덕의 무른 바위를 직접 파서 거처를 마련했다. 그곳에는 여든 명의 제자가 살았고, 모두 스승의 모범을 따르기로 다짐한 이들이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갖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었고, 이미 다른 많은 수도승이 하고 있던 것과 달리 무엇이든 사고파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손으로 하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는데, 단 하나 예외가 책을 베껴 쓰는 일이었다. 이 일은 가장 젊은 이들에게 맡겨, 나이 든 이들이 온종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고는 자기 독방을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모두가 단식이 끝나는 하루의 끝에 한 끼를 함께 먹었고, 병이 들어 약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거의 모두가 낙타털로 짠 거친 옷을 입었고, 부드러운 옷감을 걸치는 것은 그곳에서 큰 허물로 여겨졌다. 그 수도승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귀족 집안 출신으로 안락하게 자랐으면서도 스스로 원해서 이 고되고 낮은 삶을 택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훗날 우리는 그들 가운데 여럿이 주교가 되는 것을 보았다. 사실 마르티노의 수도원에

서 양성된 사제를 수장으로 모시기를 꿈꾸지 않은 도시나 교구가 어디 있었겠는가?

> **해설자의 배경 설명: 루아르강의 동굴과 중세 필경사들의 요람**
>
> 마르티노가 투르에서 2로마마일(약 3킬로미터) 떨어진 곳, 석회암 언덕과 루아르강(*Liger*) 사이에 끼인 자리에 만든 은신처는 훗날 그 유명한 **Marmoutier** 수도원(*Maius Monasterium*)이 됩니다. 루아르강 이쪽 기슭의 바위는 파기 쉬운 흰 석회암인 *tuffeau*여서, 마르티노의 수도승들이 판 동굴을 오늘날에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
> 이 장에는 유럽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
> 1. **책 필사(*scriptores*)에만 전념하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승들이 생계를 위해 바구니나 밧줄을 엮던 것과 달리, 마르티노는 Marmoutier에서 서방에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의 유일한 손노동이 **책을 손으로 베껴 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젊은 수도승들에게 필사본을 옮겨 적게 함으로써, 마르티노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동안 고대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의 큰 부분을 구해 낼 미래의 중세 *scriptoria*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
> 2. **새 주교들의 못자리:** 로마 귀족 가문의 젊은이들(*nobiles*)을 소유를 버리고 성경 공부에 전념하는 삶으로 끌어들임으로써, Marmoutier는 갈리아 교회를 쇄신한 많은 주교를 배출한 참된 영적 학교가 되었습니다.

제XI장

정체가 드러난 가짜 순교자: 제대 곁에 나타난 범죄자의 영

이제 마르티노가 주교로서 행한 다른 놀라운 일들로 넘어가자.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 수도원 바로 가까이에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이 묻혀 있다고 굳게 믿고 기도하러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앞선 주교들이 그 자리에 제대까지 세우게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마르티노는 반쯤만 전해진 이야기를 가볍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교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제들과 성직자들에게 그 순교자가 실제로 누구였으며 언제 죽었는지 묻기 시작했고, 옛사람들이 믿을 만한 기록 하나 남기지 않은 공경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한동안은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피했다. 확신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미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심에 자기가 참석함으로써 공적인 보증을 서 주는 것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수도승 몇 사람만 데리고 그곳에 가 보기로 했다.

그는 무덤 앞에 멈추어 서서, 거기에 누가 묻혀 있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자마자 바로 그곳에 험상궂은 모습의 어두운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르티노는 그 형체에게 이름이 무엇이며 살아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라고 명령했다. 그 영은 이름을 대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기는 노상강도였고, 저지른 범죄 때문에 처형되었으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순전한 착오로 공경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순교자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지만 자기는 거기서 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르티노와 함께 간 수도승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도 대답하는 목소리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자 마르티노는 자기가 방금 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 자리에서 제대를 당장 치우라고 명령하여, 주민들이 더는 그 거짓 신심에 속지 않게 해 주었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마르티노의 비판 정신과 4세기의 유해 열풍

4세기 말, 순교자 공경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시마다 옛 박해 시대 영웅의 무덤을 갖고 싶어 했고, 길가에서 오래된 무덤 하나만 나와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순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노의 태도는 그 시대로서는 놀랄 만큼 명석합니다. "백성의 신앙에 좋으니까" 하고 눈감아 주는 대신, 깐깐한 조사관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제들에게 캐묻고, 순교자의 이름과 순교 날짜 같은 역사 기록(*acta martyrum*)을 찾으며, 증거 없는 공경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고대 세계 특유의 상징적

인 세부도 하나 눈여겨보십시오. 범죄자의 망령은 **왼쪽**(*ad laevam*, 라틴어로 *sinistra*)에 나타납니다. 왼쪽은 로마 문화에서나 마태오 복음서(25,33)에서나 단죄와 연결된 쪽이었습니다.

제XII장

들판 한가운데에서 얼어붙은 이교도의 장례 행렬

얼마 뒤, 시골 지방을 다니던 어느 길에서 마르티노는 미신적인 의식에 둘러싸여 매장지로 가고 있는 어느 이교도의 장례 행렬을 멀리서 마주쳤다. 아직 700미터도 넘게 떨어져 있었기에, 마르티노는 멀리서는 무슨 일인지 똑똑히 분간할 수 없어 걸음을 멈추고 그 무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그래도 그것이 큰 무리의 농부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고, 그들이 어깨에 멘 것 위로 흰 아마포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곧 그들이 이교 행렬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갈리아의 시골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신상(神像)을 흰 천으로 덮어 들판으로 메고 다니는 오랜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르티노는 손을 들어 그들 쪽으로 십자 표시를 긋고, 그 자리에 멈추어 메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다음에 벌어진 일은 놀라웠다. 먼저 그 사람들이 모두 돌 조각상처럼 꼼짝도 못 하고 우뚝 멈추어 섰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지쳐서 시신을 땅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어리둥절해진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말없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는 동안 더 가까이에서 광경을 본 마르티노는 이것이 우상 행렬이 아니라 그저 장례 행렬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시 손을 들어, 그들이 죽은 이를 다시 메고 제 갈 길을 가도록 풀어 주었다. 이렇게 그는 원할 때에는 그들을 멈추게 했고, 좋다고 여길 때에는 평안히 가게 해 주었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이교도'를 뜻하는 서양 말의 유래와 갈리아의 농경 행렬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도는 모습이 거의 희극 같은 이 일화는, 우리말 '이교도'에 해당하는 라틴어 **paganus**(영어 pagan)라는 낱말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틴어로 마을이나 농촌 지구는 *pagus*라고 했고, 거기 사는 사람은 *paganus*, 곧 시골 사람, 촌사람이었습니다(술피키우스는 이들을 *rusticus*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도시들(*civitates*)에서는 빠르게 퍼졌지만, 갈리아의 농촌 지역 농부들은 옛 켈트·로마 의식을 오랫동안 지켜 나갔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 의식 가운데 하나는 봄에 열렸습니다(로마의 *Ambarvalia* 축제나 키벨레 숭배, 고대 켈트 모신(母神) 숭배와 비슷합니다). 풍년을 빌며 흰 아마포 천으로 덮은 신상을 메고 곡식밭 둘레를 행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티노는 500로마보(약 7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의를 그런 농경 행렬의 덮개로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마을 사람들이 죽은 이를 묻으러 가는 길임을 알자마자, 그들이 제 삶을 살아가도록 놓아주었습니다.

제XIII장

신성한 소나무의 도전: 쓰러지는 나무 아래 묶이다

또 한번은 마르티노가 아주 오래된 이교 신전을 막 허문 어느 마을에서, 신전 바로 곁에 서 있던 커다란 소나무도 베어 내게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장의 이교 사제와 온 주민이 나서서 그를 막았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돌 신전이 허물어지는 동안에는 잠자코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무에 손대는 것만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마르티노는 나무 둥치에는 신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참을성 있게 설명하려 했다. 그러니 차라리 자기가 섬기는 참하느님을 경배하라고, 그 나무는 거짓 영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베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 가운데 남들보다 대담한 한 사람이 도전을 걸어 왔다. "당신이 섬긴다는 그 하느님을 그토록 믿는다면 우리 내기를 합시다. 나무는 우리가 직접 베겠소. 대신 당신이 그 밑에 서서 쓰러지는 나무를 받으시오! 당신의 주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살아서 빠져나오겠지요!"

마르티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느님을 굳게 믿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말을 듣자 이교도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찬성했다. 자기들의 성소를 부수고 다니는 사람을 나무가 쓰러지면서 깔아뭉개 준다면, 신성한 나무를 잃는 것쯤은 얼마든지 치를 만한 값이었던 것이다.

소나무는 이미 한쪽으로 한참 기울어 자라고 있었기에, 그것이 정확히 어디로 쓰러질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르티노를 묶어 자기들이 고른 바로 그 지점, 기울어진 둥치 바로 아래에 세워 놓았다. 그러고는 도끼를 들고 신바람이 나서 흡족해하며 직접 소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거대한 소나무는 조금씩 흔들리며 우지끈 소리를 내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멀리서 마르티노와 함께 온 수도승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눈앞에 닥친 위험에 겁에 질린 그들은 모든 희망과 믿음마저 잃고, 마르티노가 거기서 깔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채 더없이 평온했다. 둥치가 요란하게 갈라지며 마침내 그를 향해 곧장 넘어오기 시작하여 막 그를 덮치려는 순간, 마르티노는 손을 들어 허공에 십자 표시를 그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사나운 돌풍이 정면으로 들이친 것처럼 소나무가 뒤로 휙 돌아 반대쪽으로 쓰러졌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자리에 서 있던 농부들이 하마터면 그 밑에 깔릴 뻔했다!



이교도 마을 사람들이 거대한 신성한 소나무가 쓰러질 바로 그 자리에 묶어 놓은 마르티노가 손을 들어 십자 표시를 긋자 나무가 반대쪽으로 쓰러진다.

곧바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교도들은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수도승들은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으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환호했다. 그날 신앙이 그 땅을 얻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마르티노에게 와서 안수를 청하고 예비 신자가 되어, 옛 믿음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은 이교도는 거의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마르티노가 그곳에 오기 전에는 그 지방에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의 기적과 모범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날 그 일대에는 사람들로 가득한 성당이나 수도원이 없는 마을이 하나도 없다. 마르티노는 이교 성소를 허물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곧장 성당이나 작은 수도원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갈리아인들은 왜 돌 신전보다 소나무 한 그루를 더 지키려 했을까요?**
>
> 이 장 첫머리의 흥미로운 대목을 알아차리셨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돌 신전이 허물어질 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마르티노가 **소나무**를 베려 하자 그를 죽이려 들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켈트인(갈리아인)의 옛 종교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오기 전에 켈트인들은 닫힌 건물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들이 참으로 머무는 곳은 수백 년 된 나무와 신성한 숲(*nemora*)이었습니다. 돌 신전은 로마인들이 들여온 유행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오래된 소나무는 마을의 종교적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꾸밈없는 정직함도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멀리서 떨며 "모든 희망과 믿음마저" 잃어버린 마르티노 자신의 수도승들의 공포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문장도 눈여겨보십시오. 옛 성소와 신성한 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경당이나 수도원을 세우는 마르티노의 이 습관이 유럽 전역에 퍼진 농촌 본당 조직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제XIV장

바람을 거슬러 물러난 불길과 Levroux의 무장한 두 천사

비슷한 무렵, 비슷한 경우에 마르티노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섰다. 그가 아주 오래되고 이름난 이교 성소에 불을 지른 어느 마을에서, 바람이 불길을 신전에 바로 붙어 있는 이웃집 쪽으로 곧장 몰아가기 시작했다. 위험을 보자마자 마르티노는 그 집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 밀려오는 불길 바로 앞을 막아섰다. 그다음에 일어난 일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치 자연의 힘들이 서로 싸우기라도 하듯, 불이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뒤로 휘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마르티노가 나선 덕분에 불은 타야 할 것만 태우고 그 집은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Levroux라는 다른 곳에서도 마르티노는 매우 부유하고 이교도들의 신심이 대단히 두터운 큰 신전을 허물려 했다. 그러나 성난 군중이 그에게 맞서 모여들어 욕설과 주먹질로 그를 그곳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마르티노는 근처의 한 곳으로 물러가, 참회의 거친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꼬박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곧 기도했다. 사람의 손으로는 그 성소를 허물지 못했으니 하느님의 권능이 친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청한 것이다.

그 사흘이 끝날 무렵, 갑자기 두 천사가 하늘 군대의 병사처럼 창과 방패를 손에 들고 그에게 나타났다. 천사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시어, 신전을 허무는 동안 군중을 쫓아 버리고 그를 지키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니 안심하고 마을로 돌아가 시작한 일을 마치라고,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마르티노는 곧바로 Levroux로 돌아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는 그 모든 이교도 주민의 눈앞에서 성소를 기초까지 무너뜨리고 제단과 신상을 모조리 산산조각 냈다. 주교를 막지도 못한 채 이렇게 자기들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뿐임을 깨달은 그곳 주민들은 거의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했다. 그들은 마르티노의 하느님만이 경배받아 마땅하며,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우상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이웃집 구하기와 Levroux의 큰 성소**
>
> 옛 마을 *Leprosum*은 오늘날 프랑스 중부(베리 지방)의 소도시 **Levroux**이며, 고고학 발굴로 이곳에 갈리아·로마 시대의 큰 종교 중심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 마르티노의 행동 방식을 잘 드러내는 특징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
> 1. **우상과는 싸우되 사람은 지킨다:** 첫째 일화에서, 바람이 신전의 불길을 옆집의 초가지붕이나 나무 지붕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자마자 마르티노는 이웃이 집을 잃지 않도록 불붙은 지붕 위로 올라가 제 몸을 내겁니다.
>
> 2. **군대 대신 참회:** Levroux에서 매를 맞고 쫓겨났을 때, 마르티노는 로마 당국에 가서 힘으로 법을 집행할 병사들을 청하지 않습니다(그 시대의 여러 주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나 사흘 동안 단식하는 쪽을 택합니다. **고행복**(*cilicium*, 염소 털이나 낙타털로 짜서 맨살에 입는 거친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얹은 채, 성경의 옛 예언자들이 하던 그대로 말입니다.

제XV장

아이두이족의 땅에서 칼 앞에 드러낸 목

아이두이족의 지방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싶다. 마르티노가 그 고장의 신전을 허물게 하고 있을 때, 격분한 이교도 농부들이 떼를 지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가운데 남들보다 성미가 급한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마르티노를 죽이려고 곧장 덤벼들었다. 마르티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망토를 어깨 뒤로 젖히더니 맨목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 사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칼을 내리치려고 팔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 그는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벌렁 나자빠졌고, 까닭 모를 공포에 사로잡혀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 마르티노가 이교 신상들을 부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칼로 그를 찌르려 했는데, 칼날을 찔러 넣으려는 순간 쇠붙이가 그의 손에서 튕겨 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시골 주민들이 자기네 성소를 허물지 못하게 막으려 하면 마르티노는 아주 다정하고 확신에 찬 말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그가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주자, 결국 자기네 신전을 허문 것은 주민들 자신이었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아이두이족의 땅과 말의 힘

아이두이족의 영토(*pagus Aeduorum*)는 오늘날의 **부르고뉴**, 오툉(옛 *Augustodunum*) 시 일대에 있었습니다. 아이두이족은 가장 오래되고 자부심 강한 갈리아 부족 가운데 하나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부터 유명했고 드루이드교의 뿌리가 매우 깊었습니다.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술피키우스는 칼과 푸줏간 칼(*culter*)이 등장하는 이런 긴박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plerumque*) 마르티노는 힘이 아니라 끈기 있는 대화와 설교로 마을들의 저항을 이겨 냈고, 마침내 주민들이 스스로 옛 제단을 헐었다는 점을 굳이 밝혀 둡니다.

제XVI장

트리어에서 축복한 기름으로 고친 마비된 소녀

병자를 고치는 은사로 말하자면, 마르티노에게서 그 은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낫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제 이야기할 사례에서 이를 똑똑히 볼 수 있다.

트리어 시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마비가 어찌나 심했던지 오랫동안 몸의 근육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서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겨우 알아볼 정도였다.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침대 둘레에 모여, 이제는 장례를 치르려고 마지막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마르티노가 방금 트리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도시에 퍼졌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도와 달라고 간청하러 숨이 턱에 닿도록 집을 뛰쳐나갔다.

그때 마르티노는 이미 성당 안에 들어가 있었다. 늙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온 백성과 다른 많은 주교가 보는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의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 “제 딸이 끔찍한 병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더 참담한 것은,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에 실낱같은 숨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저희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손으로 그 아이가 나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청을 받고 당황한 마르티노는 몹시 난처해하며 물러서려 했다. 그것은 자기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라고, 이 가엾은 사람이 자기를 잘못 보았다고, 하느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런 기적을 행하실 만한 공로가 자기에게는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더욱더 울면서, 딸이 죽기 전에 와서 보아 달라고 졸랐다. 마침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주교들까지 가 보라고 재촉하자, 마르티노는 결국 소녀의 집으로 갔다. 문밖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지 보려고 엄청난 군중이 모여들었다.

먼저 마르티노는 이런 때면 늘 쓰는 무기에 의지하여, 이마가 땅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에 잠겼다. 그런 다음 소녀를 바라보고 기름을 조금 달라

고 했다. 그는 기름을 축복하여 그 거룩한 액체를 소녀의 입에 몇 방울 떨어뜨렸고, 바로 그 순간 소녀는 말을 되찾았다. 이어서 마르티노가 손을 대는 대로 팔과 다리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마침내 소녀는 온 백성 앞에서 굳건한 걸음으로 일어섰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제국의 수도 트리어와 기름 축복**
>
> 이 이야기의 무대는 **트리어**입니다(*Augusta Treverorum*, 오늘날 독일의 도시 **Trier**로, 프랑스어 이름 Trèves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4세기에 트리어는 여느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살고 황실 궁정이 자리한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노가 성당에서 "다른 많은 주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정에서 자기 교구의 일을 처리하려고 여러 속주에서 와 있었습니다.
>
> 그리스도교 전통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 일화는 매우 귀중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중병에 걸린 이들을 낫게 하려고 주교가 기름(*oleum*)을 축복한 일에 대한 서방 최고(最古)의 증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서간(5,14)에서 영감을 얻은 이 행위가 오늘날 병자성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제XVII장

전직 총독 테트라디우스,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의 입에 넣은 마르티노의 손가락

비슷한 무렵, 전직 총독이자 정치적 비중이 큰 인물인 테트라디우스의 노예 하나가 심하게 마귀가 들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사람들이 마르티노에게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고쳐 달라고 청했고, 마르티노는 그 젊은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갇혀 있는 방에서 끌어낼 수 없었다. 문을 여는 사람마다 물어뜯으려고 어찌나 사납게 날뛰는지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자 테트라디우스가 몸소 찾아가 마르티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직접 자기 집에 와서 그 젊은이를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마르티노는 이교도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당시 테트라디우스는 아직 로마의

전통 종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총독은 그 자리에서, 악령이 그 노예에게서 떠나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마르티노는 그 집으로 가서 젊은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곧바로 그를 그 고통에서 풀어 주었다. 이를 제 눈으로 본 테트라디우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주 예수님을 믿고 즉시 예비 신자로 등록했으며, 얼마 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남은 평생 마르티노를 자기 구원의 은인으로 여기며 깊이 감사하고 존경했다.

같은 무렵 같은 도시에서, 마르티노는 다른 어느 가장의 집에 들어가다가 문간에서 우뚝 멈추어 서더니 안뜰에 흉측한 마귀가 보인다고 일렀다. 그가 떠나라고 명령하자마자 그 영은 집 뒤편 부엌에 있던 하인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 가엾은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비명을 지르고 이를 갈며, 앞에 나타나는 사람마다 사납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하인들은 겁에 질렸고 모두 거리로 달아났다.

마르티노는 날뛰는 사람에게 곧장 다가가 먼저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 사람이 계속 이를 갈며 물어뜯어 버리겠다는 듯 입을 크게 벌리자, 마르티노는 자기 손가락을 그의 입에 넣고 이렇게 맞섰다. “네게 그토록 힘이 있다면 물어 보아라!” 마귀 들린 사람은 마치 벌겋게 단 쇠가 목구멍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마르티노의 손가락을 스치지도 않으려고 즉시 턱을 한껏 뒤로 뺐다. 그리고 하느님의 징벌이 그 몸에서 떠나도록 몰아대는데 이제 입으로는 나갈 수 없게 되자, 그 더러운 영은 결국 격렬한 설사와 함께 쫓겨나면서 바닥에 지저분한 흔적을 남겼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로마의 고위 원로원 의원과 고대의 가감 없는 사실주의

이 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vir proconsularis*인 테트라디우스:** ‘전직 총독’의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로마 원로원의 최상층에 속하며 이미 제국의 큰 속주를 다스린 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르티노는 처음에 이교도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써(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나 백인대장과 처음 나누신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오만한 귀족이 스스로 신앙의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집안 노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두 번째 구마의 날것 그대로의 사실주의:** 오늘날 이 장을 읽는 사람은 이 일화의 아주 적나라한 결말에 놀라곤 합니다! 4세기의 종교적 사고방식으로는, 주교의 축성된 손가락이 하인의 입속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악령은 축복받은 통로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피키우스는 돌려 말하지 않고, 악령이 '아래로', 곧 심한 장 발작(*fluxu ventris*)을 통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합니다.

제XVIII장

야만족 침입이라는 헛소문, 파리에서 나병 환자에게 한 입맞춤, 그리고 옷의 실오라기

또 한번은 야만족들이 공격하러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갑자기 도시에 퍼져 온 주민이 공포에 빠졌다. 그러자 마르티노는 마귀 들린 사람 하나를 성당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 영에게 그 소식에 대해 사실을 모두 말하라고 명령했다. 영은 결국 자백했다. 놀란 마르티노가 도시에서 달아나기를 바라고 마귀 열이 함께 그 소문을 거리에 퍼뜨렸으며, 야만족들은 공격할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성당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나온 이 자백을 듣고 온 도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평온을 되찾았다.

한편 파리에서는, 마르티노가 엄청난 군중에 둘러싸여 성벽의 한 문을 지나고 있을 때 병으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모두가 혐오감에 차서 뒤로 물러서는데, 마르티노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 얼굴에 입을 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나았고, 바로 이튿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성당에 나타나 되찾은 건강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파리(파리시족의 루테티아) 성문 어귀에서, 군중이 겁에 질려 물러서는 가운데 마르티노 주교가 얼굴이 일그러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입을 맞춘다.

그의 옷이나 낙타털 옷에서 뽑아낸 실오라기조차 수없이 여러 번 병자들을 낫게 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손가락에 감거나 목에 걸기만 해도 앓는 이들에게서 병이 물러갔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4세기의 전쟁 소문과 파리 성문에서의 입맞춤

이 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두 일화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1. **로마 국경의 소문 전쟁:** 빠른 통신 수단이 없던 4세기 말 갈리아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라인강을 건넜다는 말만 돌아도 도시 전체가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마르티노는 성당 한가운데에서 심문을 벌여 헛소문의 정체를 드러내고 온 주민을 진정시킵니다!

2. **"Apud Parisios" — 파리라는 이름의 탄생:** 술피키우스가 장소를 밝히며 쓴 라틴어 표현 *apud Parisios*("파리시족의 땅에서")를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Lutetia*라는 옛 로마식 이름이 쓰이지 않게 되고 그 지방 갈리아 부족의 이름, 곧 **파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 가는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와 있습니다! 마르티노가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춘 성벽의 문은 *Île de la Cité* 어귀, 오늘날 Notre-Dame 대성당이 서 있는 곳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나병이 공포의 대상이었

고 나병 환자를 돌을 던져 쫓아내던 사회에서, 주교가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을 끌어안고 뺨에 입 맞추는 모습은 그 도시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제XIX장

아르보리우스의 딸을 고친 편지, 놀라의 파울리노의 눈,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일

전직 로마 총독이며 매우 깊고 진실한 신앙을 지닌 아르보리우스에게는 무서운 사일열 발작으로 집에서 시들어 가는 딸이 있었다. 마침 그 무렵 그는 마르티노가 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소녀에게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그 편지를 딸의 가슴에 얹었더니, 그 즉시 열이 내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르보리우스는 자기가 본 일에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딸을 영원한 정결의 삶으로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마르티노를 찾아 길을 떠나면서, 그가 멀리서도 병을 고쳤다는 산 증거인 딸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딸에게 봉헌된 동정녀의 너울을 씌워 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마르티노 자신이어야 한다고 한사코 고집했다.

한편 훗날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인 삶의 탁월한 모범이 될 파울리노는 한쪽 눈에 끔찍한 통증을 앓기 시작했고, 눈동자 위에 두꺼운 막이 끼어 눈이 멀어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르티노는 의료용 작은 붓으로 그의 눈을 살며시 쓸어 주어 순식간에 모든 통증을 없애고 예전처럼 온전한 시력을 되찾아 주었다.

마르티노 자신은 어느 날 불행히도 위층에서 떨어져, 디딤판이 비뚤비뚤하고 부서진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바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찢기고 멍이 들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자기 독방에 누워 있었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의 상처를 씻어 주고 만신창이가 된 온몸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향유를 발라 주었다. 이튿날 아침 마르티노는 아주 멀쩡하고 거뜬하게 일어나, 떨어진 적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려 든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수많은 일 가운데 고른 이 몇 가지 예에서 멈추기로 하자. 너무 많은 이야기로 독자를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들에 관한 진실을 보여 주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말라리아, 눈병, 그리고 로마 귀족의 두 거물**
>
> 여기서 우리는 당대의 다른 사료를 통해서도 아주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 두 사람과 마주칩니다.
>
> 1. **마그누스 아르보리우스와 '사일열':** 아르보리우스는 제국의 고위 관리(*vir praefectorius*, 379~380년경 로마 시 총독)였고, 보르도의 유명한 시인 아우소니우스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딸을 덮친 '사일열'은 중증 **말라리아**의 한 형태(*Plasmodium malariae*)로, 격렬한 고열과 오한이 사흘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첫날과 마지막 날을 함께 세는 로마식 계산법으로는 '나흘째마다'입니다).
>
> 2. **놀라의 성 파울리노(354~431년):** 심한 눈병이 나은 이 '파울리노'는(아마도 각막 궤양이나 외상성 백내장이었을 것이고, 고대 의사들이 쓰던 작은 해면이나 붓인 *peniculus*로 눈을 닦아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폰티우스 메로피우스 파울리누스**입니다. 보르도에서 태어난 엄청난 부자 원로원 의원으로, 캄파니아 총독을 지냈고, 우리 저자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가장 친한 벗이었습니다! 파울리노 자신도 이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글에 남겼습니다. 얼마 뒤 그는 막대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탈리아 남부 놀라로 가서 살았으며, 고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XX장

황제 마그누스 막시무스의 연회: 황제보다 먼저 사제에게 건넨 잔

이제 그토록 큰 기적들 곁에서는 작아 보일지도 모를 일화로 넘어간다. 하기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주교가 황실 궁정의 아첨에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다른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나 다름없다! 여러 속주에서 온 수많은 주교가 막시무스 황제의 궁정에 모

였을 때의 일이다. 황제는 내전에서 이긴 뒤 오만에 찬 거친 사람이었는데, 주교들이 하나같이 비굴하게 그의 비위를 맞추며 주교의 품위를 한낱 권력의 아첨꾼 노릇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했다. 오직 마르티노만이 사도다운 굳건한 자세를 고스란히 지켰다! 누군가를 위해 황제에게 관용을 청해야 할 때에도 그는 대단한 권위로 말했기에, 호의를 구하기보다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막시무스가 황제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아무리 여러 번 초대해도 마르티노는 번번이 거절했고, 정당한 황제 두 사람을 제거한 사람, 곧 한 사람에게서는 제위를, 다른 한 사람에게서는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의 식탁에는 앉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막시무스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자기는 개인적 야심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병사들에게 떠밀려 통치하게 되었고 무력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단언했다. 또 자기처럼 신속한 승리는 하느님의 손길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으며, 자기 적들 가운데 전쟁터 밖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명과 간청을 섞어 가며 어찌나 조르던지 마르티노도 결국 만찬에 가기로 했고, 황제는 마침내 그를 설득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다.

연회는 큰 축제일 같았고, 제국의 가장 높은 인물들이 식탁에 모였다. 총독이자 집정관이며 일찍이 없던 의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인 에보디우스가 그 자리에 있었고, 최고의 군사 권한을 지닌 두 코메스도 있었는데, 그들은 황제의 형제와 숙부였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마르티노를 수행한 사제가 앉았고, 마르티노 자신은 황제의 자리 바로 곁에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았다.

만찬 도중, 궁정 의전에 따라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황제에게 포도주잔을 가져왔다. 막시무스는 공손한 마음으로 그 잔을 먼저 거룩한 주교에게 가져가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마르티노의 손에서 직접 잔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르티노는 한 모금 마신 뒤 그 잔을 자기와 함께 온 사제에게 내밀었다! 그 방 안에서 주교 다음으로 마실 만한 품위를 지닌 사람은 달리 없으며, 사제보다 황제 자신이나 그 친척들을 앞세운다면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트리어의 황실 연회에서, 황제 마그누스 막시무스 곁의 작은 의자에 앉은 마르티노가 황제의 잔으로 마신 뒤 군주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기를 수행한 사제에게 건네자 궁정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황제도 모든 손님도 그 자유로운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아, 자기들을 뒷전으로 밀어낸 바로 그 행동을 좋게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궁전 전체가 이 이야기뿐이었다. 다른 어느 주교도 하급 지방관의 만찬에서조차 감히 하지 못한 일을 마르티노는 황제 자신의 식탁에서 용감하게 해냈다는 것이다.

훗날,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에 마르티노는 바로 그 막시무스에게,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젊은 황제 발렌티니아누스를 치려는 계획을 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닥칠지 경고했다. 첫 전투에서는 이기겠지만 얼마 뒤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본 그대로 일이 벌어졌다. 막시무스가 이탈리아에 들어서자마자 발렌티니아누스는 달아나야 했다. 그러나 한 해쯤 뒤 그는 군대를 재정비하여 아퀼레이아 성벽 안에 있던 막시무스를 포위하고 사로잡아 처형했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로마의 고위 정치와 트리어에서 벌어진 의전 파괴

385년 또는 386년 무렵 트리어의 황궁을 배경으로 한 이 장면은 고대의 정치권력과 교회의 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1. **마르티노가 말한 '두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마그누스 막시무스**는 히스파니아 태생의 장군으로, 383년 브리타니아 주둔군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해협을 건너 젊은 정통 황제 **그라티아누스**를 무찌르고 죽게 했으며(*목숨을 빼앗긴 황제*), 그의 이복동생인 소년 **발렌티니아누스 2세**를 압박했습니다(*제국의 일부를 빼앗긴 황제*). 식탁에 앉은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입니다. **플라비우스 에보디우스**는 갈리아 근위대 총독이었고 386년의 로마 집정관이었습니다.

2. **잔(*patera*) 소동:** 황실 궁정의 엄격한 규칙에 따르면, 황제의 잔으로 먼저 마시고 그것을 황제에게 직접 돌려 드리는 것은 손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마르티노는 황제와 집정관과 황실 코메스들을 건너뛰어 자기의 평범한 사제(*presbyter*)에게 잔을 건넴으로써, 영적인 것은 군사력이나 정치권력 앞에 굽히지 않는다는 점을 한마디 말도 없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마르티노는 무슨 일로 막시무스의 궁정에 갔을까요?**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다른 책(『*연대기*』)을 통해 우리는 마르티노가 히스파니아의 주교 프리스킬리아누스와 그 제자들을 죽음에서 구해 보려고 트리어에 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민 다른 주교들에게 이단으로 고발당했는데, 마르티노는 국가가 종교 문제로 사람을 처형하는 일을 막으려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제XXI장

천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피 묻은 쇠뿔을 든 악마

마르티노가 자주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과 직접 이야기까지 나누었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악마로 말하자면, 그의 눈에는 너무나 또렷이 보였기 때문에 악마가 본모습 그대로 나타나든 해를 끼치려고 온갖 변장을 하든 결코 그의 눈을 피해 지나갈 수 없었다. 마르티노를 속일 수 있는 계략이 없음을 깨달은 악마는, 덫을 놓을 수 없게 되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앙갚음했다.

어느 날 악마는 소름 끼치는 포효를 내지르며 마르티노의 독방에 들이닥쳤는데, 피범벅이 된 오른손에 피 묻은 쇠뿔을 들고 있었다. 방금 자기가 일으킨 불행에 신이 난 악마는 그에게 소리쳤다. "마르티노, 네 능력은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방금 네 사람 가운데 하나를 죽였다!"

마르티노는 즉시 수도승들을 불러 악마가 방금 한 말을 전하고, 독방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누가 없는지, 누가 불행을 당했는지 살펴보라고 보냈다. 그들은 곧 돌아와, 수도승들은 모두 무사하지만 수레로 땔나무를 실어 오도록 날품으로 고용한 농부 한 사람이 그날 아침 숲에 갔다고 말했다. 마르티노는 곧바로 형제 몇 사람에게 서둘러 그를 찾아보라고 했다.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이미 거의 죽은 채 땅에 쓰러져 있는 그 가엾은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남은 숨을 모아 수도승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소 멍에의 느슨해진 가죽끈을 조이고 있는데 소 한 마리가 머리를 세게 휘두르는 바람에 뿔에 사타구니를 찔렸다는 것이다. 그는 잠시 뒤 숨을 거두었다.

하느님께서 왜 악마가 이런 불행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는지는 독자 각자가 헤아려 볼 일이다. 마르티노에게서 놀라웠던 점은, 이 경우에나 다른 많은 비슷한 경우에나,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그것을 훤히 알았고, 또는 멀리서 벌어지는 일을 형제들에게 알려 주도록 곧바로 내적인 일깨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땔나무 날품팔이꾼, 그리고 비극 앞에서 보인 술피키우스의 솔직함

이 장에는 아주 아름다운 인간적인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네 사람 가운데 하나":** Marmoutier의 수도승들은 세상과 떨어져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가장 젊은 이들은 책을 베껴 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도원은 그 지역의 농촌 일꾼들을 고용하여(*mercede conducti*, 날삯을 받는 사람들) 소달구지로 숲에서 땔나무를 해 오게 했습니다. 수도승은 아니었지만, 그 소박한 일꾼도 마르티노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2. **고통에 쉬운 답을 내놓지 않기:** 일하다 사고로 죽은 그 사람의 비극 앞에서, 술피키우스 세베루스는 교훈을 지어내려 하지도, 피해자를 탓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물음을 열어 둡니다. *"하느님께서 왜 악마가 이런 불행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는지는 독자 각자가 헤아려 볼 일이다"(Viderit is, quo judicio Domini...).

제XXII장

유피테르, 메르쿠리우스, 베누스의 변장 — 그리고 악마에게까지 한 용서의 약속

악마는 그 밖에도 여러 번 온갖 술책으로 성인을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어떤 때는 유피테르의 모습을 했고, 그보다 훨씬 자주 메르쿠리우스의 모습을 했으며, 베누스나 미네르바의 얼굴로 나타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마르티노는 결코 평정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십자 표시와 기도로 자신을 지켰다.

마귀들이 떼를 지어 그에게 무례한 욕설을 외치는 소리도 자주 들렸다. 그러나 마르티노는 그 모든 것이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일 뿐임을 알았기에 그 비난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몇몇 수도승은 한번은 어떤 마귀가 오만한 말투로 마르티노에게 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예전에 중대한 잘못과 죄로 세례의 은총을 더럽혔다가 나중에 뉘우친 형제들을 왜 수도원에 받아들였느냐고 물으면서, 그들 각자의 옛 죄를 하나하나 주워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수도승들의 말로는, 마르티노는 누군가 진심으로 삶을 바꾸면 과거의 잘못은 깨끗이 지워지며, 하느님의 자비로 죄짓기를 그친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악마가 큰 죄인들은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세례 후에 넘어진 자들을 하느님은 다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맞받아치자, 마르티노는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다고 한다.

"가련한 자여, 너 자신이라도 인류를 괴롭히기를 그치고 네가 저지른 악을 뉘우친다면, 최후 심판의 날이 이토록 가까운 지금이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기에 너에게 하느님의 용서를 약속하겠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얼마나 놀랍고도 대담한 신뢰인가! 그런 약속을 보증할 권한은 없었지만, 마르티노는 이 말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악마와 그의 덫에 관해 말하는 김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화 하나를 여기서 이야기해 둘 만하다. 마르티노에게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의 영적인 힘을 분명히 드러내 주며, 언젠가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모두가 경계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둘 가치가 있다.

> 🎙️ **해설자의 배경 설명: 옛 로마의 신들과 성 마르티노의 가장 대담한 한마디**
>
> 이 장에는 4세기 영성의 인상적인 순간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
> 1. **유피테르, 메르쿠리우스, 베누스, 미네르바:**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판테온의 신들은 그저 신화 속의 시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들은 그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만적인 영적 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유피테르는 권력욕으로, 메르쿠리우스는 간교함과 돈으로, 베누스는 유혹으로, 미네르바는 지적 허영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 2. **사탄에게까지 용서를 약속하다:** 마르티노 시대의 교회 안에는, 세례받은 뒤 중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매우 엄격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마르티노는 험한 과거를 지닌 사람들을 수도원에 두 팔 벌려 맞아들일 뿐 아니라, 악마에게까지 그가 뉘우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너무나 대담하게 긍정한 말이었기에(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사상에 가깝습니다), 술피키우스 세베루스는 더 정통적인 독자들을 위해 곧바로 신중한 단서를 덧붙일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약속을 보증할 권한은 없었지만, 마르티노는 이 말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 주었다."*

제XXIII장

클라루스 이야기, 거짓 예언자 아나톨리우스,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옷

클라루스라는 매우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나중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지금은 거룩한 죽음을 맞아 하느님의 평화 안에 쉬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마르티노 가까이에 와서 살면서 빠르게 깊은 신

앙과 모범적인 삶에 이르렀다. 클라루스는 주교의 수도원 근처에 작은 은수처를 지었고, 그곳에는 이미 여러 수도승이 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나톨리우스라는 젊은이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자기가 수도승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순진한 사람인 척했고, 결국 그곳에 머물며 다른 이들과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얼마 뒤 그는 천사들이 자기와 이야기하러 정기적으로 찾아온다고 동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믿지 않자, 그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 몇몇 수도승에게 깊은 인상을 줄 방법을 찾아냈다. 머지않아 그는 천사들이 자기와 하느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전갈을 나른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자기를 참된 예언자로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클라루스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를 설득하지 못해 화가 난 아나톨리우스는 성인의 말을 의심한 탓에 하느님의 진노와 임박한 징벌이 내릴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이런 엄숙한 선언을 내놓았다. “알아 두시오. 오늘 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흰옷을 보내 주실 것이오! 내일 나는 그것을 입고 여러분 가운데를 다닐 것이며, 하느님의 손에서 직접 온 옷을 입은 내가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은 거기서 보게 될 것이오!”

말할 것도 없이 온 공동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며 몹시 술렁였다. 그런데 자정 무렵, 사람들이 땅을 세게 구르기라도 하는 듯 수도원 전체가 기초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나톨리우스의 독방에서는 밝은 빛이 거듭 번쩍였고,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와 여러 목소리가 웅성대는 어수선한 소리가 뒤따랐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나톨리우스가 문을 열고 밖에 있던 사바티우스라는 수도승을 불러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보여 주었다.

입이 떡 벌어진 사바티우스는 다른 이들을 깨우러 달려갔다. 클라루스도 무슨 일인지 보러 곧장 왔다. 그들은 등불을 켜 들고 와서 모두 그 옷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천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순백색에 눈부신 자주색 띠로 가장자리를 둘렀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것이 무슨 섬유나 무슨 털로 만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렇기는 해도 눈으로 보기에나 손끝으로 만져 보기에나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 옷 같았다.

클라루스는 신중하게, 이 모든 일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하느님께서 분명히 보여 주시도록 남은 밤 동안 기도하자고 형제들에게 청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동이 틀 때까지 찬미가와 시편을 노래하며 머물렀다. 해가 뜨자마자 클라루스는 아나톨리우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마르티노 앞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악마의 어떤 속임수도 주교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 가련한 사람은 공포에 질렸다. 그는 발을 버티고 서서, 마르티노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수도승들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를 붙잡자, 옷은 그를 붙든 사람들의 손 사이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여기서도 마르티노의 영적 권능이 드러났다는 것을, 주교의 눈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자 악마가 자기 속임수조차 유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해설자의 배경 설명: 숨은 허영심과 로마 원로원 의원의 옷

클라루스는 마르티노가 가장 아끼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그는 스승보다 며칠 앞선 397년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술피키우스는 편지에서 그를 매우 애틋하게 회상했습니다). 아나톨리우스의 '하늘에서 온' 옷에 관한 의미심장한 대목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것은 *"순백색에 눈부신 자주색 띠로 가장자리를 두른"*(*candore eximio, micanti purpura*) 옷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자주색 줄무늬가 있는 흰 튜니카(*tunica laticlavia*)는 원로원 의원과 고위 정무관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수도원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자기를 로마 원로원 의원처럼 입혀 주신다고 상상하는 데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나톨리우스의 억눌린 욕망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Marmoutier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밝혀지는지도 눈여겨보십시오. 등불 아래에서 수도승들의 눈도 손도 그 환영을 잡아내지 못했지만, 마르티노의 차분하고 맑은 눈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연극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XXIV장

히스파니아의 가짜 그리스도들과 황제 차림을 한 악마: “십자가의 상처가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않겠다”

마침 그 무렵 히스파니아에 한 젊은이가 나타난 일이 알려졌다. 그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이름을 얻은 뒤 허영으로 잔뜩 부풀어, 처음에는 자기가 예언자 엘리야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던지, 루푸스라는 주교까지 그가 주님이기라도 한 듯 무릎을 꿇고 경배했고, 이 추문 때문에 그 주교는 나중에 주교직을 잃었다. 또 여러 형제가 우리에게 전해 준 바로는, 꼭 같은 때에 동방에서도 자기가 성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적이 올 날이 멀지 않았으며 그가 이런 인물들을 통해 이미 터를 닦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악마가 마르티노 자신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려 했는지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마르티노가 독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타오르는 자줏빛 광채에 잠기고 둘러싸인 형체가 그의 앞에 서서 나타났다. 보는 이를 그 거짓 광채로 눈부시게 하려고 세세한 데까지 꾸민 모습이었다. 그는 황제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보석이 박힌 금관을 쓰고, 발에는 금을 입힌 신을 신고 있었으며, 표정이 어찌나 평온하고 미소가 어찌나 환했던지 도무지 악마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눈부신 환영을 마주한 마르티노는 처음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악마였다. “마르티노,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나는 그리스도다. 이제 곧 땅에 내려가려 하는데, 먼저 너에게 나타나고 싶었다.”

마르티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악마는 더욱 대담하게 다시 몰아붙였다. “마르티노, 네 눈으로 나를 보면서 어찌하여 믿

기를 망설이느냐? 나는 그리스도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을 비추어 주시어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주님이 아니라 악마임을 깨달은 마르티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주색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수난 때에 고통받으신 그 모습과 얼굴로,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신 그분을 보지 않는 한,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결코 믿지 않겠다!”



어스름한 독방 안, 자줏빛 광채와 임금의 옷, 금신과 보석 관으로 몸을 감싼 악마 앞에서 마르티노가 대답한다. “수난 때에 고통받으신 그 모습으로,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신 그분을 보지 않는 한,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결코 믿지 않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형체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흩어졌고, 독방에는 구역질 나는 악취가 가득 남아 그것이 정말 악마였음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지어낸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바로 말해 두거니와, 나는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이 이야기를 마르티노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들었다.

해설자의 배경 설명: 이 책의 절정 — 황제 차림의 그리스도에 맞서

많은 역사가와 사상가에게, 마르티노가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에게 직접 들려준 이 제XXIV장은 전기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고 오늘날에도 가장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히스파니아**(오늘날의 이베리아반도)에 대한 언급을 눈여겨보십시오. 4세기 말 이베리아의 속주들에는 세상 종말의 분위기가 짙게 감돌았고, 루푸스라는 그 지방 주교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에게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악마가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고른 옷차림**을 눈여겨보십시오. 자주색 옷(*vestis regia*), 금과 보석으로 된 관(*diadema*), 금을 입힌 신발(*calcei auro illiti*). 하나하나가 4세기 로마 황제들의 예복 그대로였습니다! 제국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면서, 궁전에 익숙한 많은 주교가 그리스도를 온통 황금과 지상의 승리로 둘러싸인 제국의 군주처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노의 대답은 번갯불처럼 여러 세기를 가로지릅니다. 사치와 권력으로 가득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십자가의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는 위조품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티노에게 그리스도의 참얼굴은 여전히, 아미앵 성문에서 자기 망토 반쪽을 내주었던 그 가난하고 얼어붙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제XXV장

저자가 성 마르티노를 찾아가다: 자기 전기 작가의 발을 씻어 준 주교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마르티노의 신앙과 생활 방식과 내적인 힘에 관해 들어 왔고, 그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오로지 그를 찾아뵈려고 큰 기쁨을 안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미 그의 전기를 쓰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기에, 이 기회에 이런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그의 겸손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았고, 나머지는 그 일화들을 목격했거나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았다.

그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다정하게 나를 맞아 주었는지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를 보려고 일부러 길을 떠났을 만큼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동했고 주님 안에서 기쁨에 넘쳤다. 가련한 죄인인 나로서는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는 우리를 자기 식탁에 초대하는 영예를 베푼 뒤 식사 전에 손수 내 손에 물을 부어 주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손수 무릎을 꿇고 우리 발을 씻어 주었다! 나는 거절하거나 말릴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도덕적 권위가 워낙 커서,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거의 큰 잘못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Marmoutier의 해 질 녘, 연로한 주교 마르티노가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행에 지친 전기 작가이자 벗인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발을 손수 씻어 준다.

우리와 나눈 모든 대화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했다. 가벼운 마음과 빈손으로 주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헛된 꿈과 이 삶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산 본보기로,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위대한 파울리노를 거듭 내세웠다. 파울리노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끝도 없는 영지를 팔았고, 우리 세대에서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실천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바로 그의 길이라고 마르티노는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 시대가 그런 믿음과 용기의 산 증거를 가졌으니 대단히 복되다고 했다. 파울리노처럼 엄청난 부자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줌으로써, 모두

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마르티노의 말과 대화에는 얼마나 굳건함과 고귀함이 있었던가! 성경의 가장 어려운 대목을 풀이할 때 그는 얼마나 놀랍도록 명석하고 민첩하고 명료했던가! 많은 사람이 이 점을 미심쩍어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직접 이야기해 줄 때조차 고개를 젓는 사람들을 나 자신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닌 신앙 앞에 맹세하거니와, 평생 누구의 입에서도 그토록 큰 지혜와 그토록 뛰어난 지성과 그토록 맑고 순수한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물론 마르티노의 도덕적 위대함에 견주면 그의 말솜씨를 칭찬하는 것은 작은 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큰 학교에 다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은사마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한 번의 방문이 작가의 삶을 바꿀 때**
>
> 이 장에서는 **술피키우스 세베루스** 자신이 일인칭으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서기 394년에서 396년** 사이, 당시 아퀴타니아의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젊은 홀아비로 보르도에서 법학과 수사학을 공부한 술피키우스는 늙은 주교 마르티노를 만나러 투르로 갔습니다(그때 마르티노는 예순 살이나 여든 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
> 로마 귀족에게, 여행에서 도착해 보니 집주인이, 그것도 존경받는 주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 샌들의 먼지를 닦아 주고 발을 씻어 주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가장 천한 노예들이나 하던 시중입니다!)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내적 격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술피키우스도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프리물리아쿰에 있는 자기 영지에 수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
> 마르티노의 지성을 열렬히 변호하는 술피키우스의 모습도 눈여겨보십시오. 갈리아의 엘리트주의적인 주교들은 그가 *homo illiteratus*, 곧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 병영에서 자라 로마의 큰 학교에서 고전 수사학을 공부하지 못한 군인 출신이라고 얕보았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술피키우스는 그 늙은 군인만큼 명료하고 순수한 언어로 깊이 있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독자들에게 굳이 맹세까지 합니다!

제XXVI장

내면의 초상: 대장장이의 모루, 그리고 자기 사제들에 대한 인내

이 책도 끝이 가까워 오니 이제 마무리할 때다. 마르티노에 관해 더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작품의 마지막 구간에서 숨이 차오르는 서툰 시인들처럼 나 자신이 주제의 위대함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일화들은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말로 옮길 수 있지만, 그의 내적인 삶, 말없는 일상, 늘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던 그 마음에 이르면, 솔직히 말해 그것을 그려 내기에 충분한 인간의 말은 없다. 단식에서 보인 그 차분하고 균형 잡힌 한결같음, 밤을 낮처럼 지새우며 기도하던 그 끈기, 하느님을 섬기는 일 밖에서는 단 일 분도 허비하지 않고, 결코 게으름에 빠지거나 세속의 일에 정신을 팔지 않으며, 몸이 버티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먹고 자던 모습. 과장 없이 고백하건대, 흔히 하는 말대로 호메로스가 저승에서 돌아온다 해도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그려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마르티노의 삶은 그만큼 한 권의 책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

그가 기도하거나 독서에 잠겨 있지 않은 채 지나간 시간은 단 한 시간도,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사실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손에 잡고 있을 때에도 그는 결코 마음을 기도에서 떼어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은 대장장이들의 익숙한 몸짓을 떠올리게 했다. 대장장이들은 벌겋게 단 쇠를 두드려 모양을 잡다가 박자를 잃지 않고 팔을 쉬게 하려고 이따금 빈 모루를 가볍게 두드린다. 그와 같이 마르티노도 다른 일을 처리하느라 바빠 보일 때에조차 속으로는 줄곧 기도하고 있었다.

거짓도 악의도 모르는, 얼마나 비범하고 빛나는 사람인가! 그는 결코 아무도 단죄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결코 똑같이 되갚지 않았다. 모욕을 참는 인내가 어찌나 컸던지, 그가 교구의 주교인데도 가장 낮은 지위의 성직자들까지 자주 그를 무례하게 대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리에서 내쫓은 적이 없고, 한결같이 온 애정으로 그들을 대했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모루의 박자와 자기 교회 안에서 받은 모욕**
>
> 이 장은 고대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 줍니다. 바로 **대장장이의 모루**(*incus fabrorum*)입니다. 옛 대장간에서는(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전통 공방에서는!) 대장장이가 집게로 쇳덩이를 불 속에서 돌리는 동안, 팔의 박자가 끊기지 않도록 망치로 모루의 쇠를 직접 가볍게 박자 맞추어 두드렸습니다. 술피키우스가 보기에 마르티노에게 기도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의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뛰는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
> 그러면 투르 교구 안에서 마르티노를 모욕하고도 벌을 받지 않은 이 '가장 낮은 지위의 성직자들'(*infimi clerici*)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술피키우스가 나중에 『*대화집*』에서 전합니다) **브릭티우스**(*Brice*)라는 젊은 사제로, 그는 마르티노의 환시와 초라한 옷차림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분개한 수도승들이 그를 쫓아내라고 주교에게 청하자, 마르티노는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참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브릭티우스를 참아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고는 브릭티우스가 언젠가 뉘우치고 자기 뒤를 이어 투르의 주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397년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XXVII장

맺음말: 빛나는 얼굴, 그리고 시기하는 주교들에게 주는 대답

마르티노가 화내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자제력을 잃거나 슬픔에 짓눌리거나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평온한 사람이었고, 얼굴에는 밝게 빛나는 기쁨이 어려 있어 이미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 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입술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선함과 평화와 연민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는 자기 등 뒤에서 더없이 비열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울기까지 하는 일이 잦았다. 그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

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사는데도, 그들은 독사의 독 묻은 혀로 그를 물어뜯었다.

사실 우리 자신도 그의 삶과 고결함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몇몇 알게 되었다. 자기에게는 없고 본받을 용기도 없는 덕을 마르티노에게서 보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장 슬프고 부끄러운 일은, 글로 쓰기조차 괴롭지만, 그 몇 안 되는 박해자가 거의 모두 주교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짖어 대더라도 여기서 이름을 밝힐 것은 없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 글을 읽고 제 발이 저려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면, 우리가 말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셈이 될 테니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밖에, 마르티노 같은 사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우리까지 미워하게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적의를 영예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 작은 책이 진실한 신앙을 지닌 모든 선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다른 이들로 말하자면, 누가 악의와 불신을 품고 이 글을 읽는다면 그것은 자기 양심과 알아서 할 일이다. 나로서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오로지 내가 확인한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이 책을 썼고, 확실히 입증된 사실을 전했으며,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이들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믿게 되는 이들을 위해 상급을 마련해 두셨기를 간절히 바란다.

> **해설자의 배경 설명: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변호하려고 쓴 책**
>
> 우리는 술피키우스 세베루스가 쓴 작품의 마지막 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술피키우스가 이 제XXVII장 끝에서 펜을 내려놓은 것은 **397년** 초의 몇 달 사이였고, 그때 **성 마르티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
> 이 마지막 장들이 그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책은 권력의 복도에서 마르티노를 업신여기던 갈리아의 세속적인 주교들에 맞서 그를 열렬히 변호하는 글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일격에 담긴 절묘한 풍자를 눈여겨보십시오. 뛰어난 법정 변호사다운 솜씨입니다. 술피키우스는 시기하는 주교

의 이름을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책을 읽고 공개적으로 항의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제 발 저린 사람이 자기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도록 말입니다!

해설자의 맺는 글

그 뒤의 이야기: 성 마르티노의 죽음과 11월 11일의 유래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책은 왜 성 마르티노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날까요? 이유는 더없이 간단합니다. 397년 봄이나 여름, 원고가 완성되어 데시데리우스의 집으로 보내졌을 때 마르티노는 여전히 갈리아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의 끝은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는 편지 세 통(*에우세비우스에게, 부제 아우렐리우스에게, 그리고 장모 바술라에게 보낸 편지*)으로 전한 사람이 바로 술피키우스 세베루스 자신이었습니다.

같은 해인 **397년** 10월 말이나 11월 초, 이미 세월에 몹시 쇠약해진 마르티노는 **Candes**(오늘날의 *Candes-Saint-Martin*, 비엔강이 루아르강으로 흘러드는 곳) 본당의 사제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치유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했던 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Candes의 성직자들을 화해시키는 데 성공한 뒤, 사랑하는 Marmoutier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채비하던 그는 갑자기 높은 열에 쓰러져 기력이 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눈물범벅이 되어 그의 초라한 잠자리 둘레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를 떠나십니까? 고아가 될 저희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사나운 이리들이 아버지의 양 떼를 덮칠 것입니다!"* 마침내 하느님께 떠나고 싶은 바람과 수도승들을 보호자 없이 남겨 두는 슬픔 사이에서 갈등하던 마르티노는 그때 그의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말 가

운데 하나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 백성에게 제가 아직 필요하다면 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non recuso laborem*).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열병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몸 밑에 소박한 짚 요 하나 까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와 참회의 거친 옷**을 깐 땅바닥에 반듯이 누워 죽겠다고 고집하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 위에서가 아니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제들이 몸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그를 조금 옆으로 돌려 눕히려 하자 그는 이렇게 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닝 두십시오. 땅보다 하늘을 계속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이 주님께 기려고 걸어갈 길에 벌써 익숙해지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악마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느낀 그는 마지막으로 악마에게 맞섰습니다. *"잔인한 짐승아,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저주받은 자야, 너는 내 안에서 네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게 그는 **397년 11월 8일** 평화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은 배에 실려 루아르강을 거슬러 **투르** 시로 옮겨졌고, 일찍이 본 적 없는 군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술피키우스의 말로는 수도승만 해도 이천 명에 가까웠고, 그 밖에 수많은 봉헌된 여성과 여러 도시와 마을의 온 주민이 배가 지나가는 동안 강기슭을 따라 걸으며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397년 11월의 어느 아침, 루아르강: 성 마르티노의 시신을 Candes에서 투르로 싣고 가는 배를 "성 마르티노의 여름"의 금빛 햇살 아래 양쪽 강기슭에서 손에 횃불을 든 수천 명의 수도승과 주민이 따라간다.

투르에서의 장엄한 장례는 사흘 뒤인 **397년 11월 11일**에 치러졌습니다. 유럽의 겨울이 문턱에 다가오고, 들일이 끝나 가며, 저장고에서 햇포도주를 맛보고 제철 밤을 굽던 때에 마르티노의 시신이 땅에 묻힌 바로 그날이 **성 마르티노 축일**로 온 유럽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 삽화 전자판에 대하여

이 현대 한국어판은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라틴어 원작 *De vita beati Martini*(*Patrologia Latina* 제20권, J. P. 미뉴 편, 1845년 / 위키문헌)를 빠짐없이, 술술 읽히는 쉬운 글로 옮겨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 전체 27장과 데시데리우스에게 보낸 헌정 편지의 현대어 번역 외에 삽화 14점(역사 지도 1점과 역사화 13점), 그리고 4세기 말의 역사적·사회적·지리적·영적 배경에 관한 해설자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영어판 *The Life of Saint Martin*을 바탕으로 했으며, 영어판은 현대 포르투갈어판 *A Vida de São Martinho*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번역도 같은 라이선스로 펴냅니다.

위키문헌 원문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 GNU FDL.